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미사 시간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 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구역 미사

일 시	담당 구역	장 소
7월 18일(화), 20:00	13구역	강 당
7월 25일(화), 20:00	20구역	강 당

● 알 림

- 7월 19일(수) 11시 소성전에서 경로당 월례미사가 있습니다.

● 청소년 분과

- 유초등부 여름 신앙 학교**
 - 일 시 : 7월 22일 ~ 23일
 - 장 소 : 강원도 청소년 수련원
 - 대 상 : 6세~초5 (6~8세 보호자 동반)
 - 문 의 : 정상범 야고보 010-7275-4253
- 중고등부 여름 신앙 학교**
 - 일 시 : 8월 4일 ~ 6일
 - 장 소 : 춘천댐 아름다운 세상
 - 대 상 : 중·고등부 학생 (초6~고3)
 - 문 의 : 김덕리 라파엘 010-4463-4260
- 청년 여름 캠프**
 - 일 시 : 8월 26일(토) ~ 27일(일) 1박 2일
 - 장 소 : 워터플레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 비 용 : 5만원
 - 입금계좌 : 카카오�뱅크 3333-12-9719040 신연미
 - 문 의 : 신연미 가브리엘라 010-7599-3239

● 청소년 후원회 모임

- 일 시 : 7월 22일(토), 오후 5시 30분
- 장 소 : 채선당 ☎ 865-5633 / 대림점
- 대 상 : 청소년후원회 회원, 사목위원, 청소년 사목 후원을 위하여 뜻을 함께하실 모든 분
- 문 의 : 이계명 다니엘 회장 (010-5335-2236)
- ※ 많은 분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예비자 입교식

- 7월 23일(일) 10시 30분 / 교중 미사 중

● 수능 수험생 부모 기도 모임

- 수험생을 위한 부모 기도 모임을 하고자 하오니 원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홍선희 베로니카 010-4435-7375
- 상세일정은 추후 공지합니다.

●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날 (7/23,일)’ 전대사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신자들의 신심을 강화하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전대사를 수여하셨습니다.
- 조건
 1.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 받기
 2. 영성체
 3. 교황님의 7월 기도 지향인 ‘성체성사의 삶’을 살도록 기도
- 실천 (택1)
 - ① 진정한 참회와 사랑의 정신으로 미사에 참여
 - ②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연로한 형제자매를 방문 또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만나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보스코 자습실 방학 특강

- 대 상 : 초·중학생 (관내 비신자 포함)
- 과 목 : 수학, 영어, 영어회화, 과학, 체육
- 일 시 : 7월 24일부터 월~금, 오후 4시
- 장 소 : 교육관
- 문 의 : 02-6738-2201 (평일:13:00~19:00)

● 다음 주일(7/23)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7월/8월 쉽니다.	청 소	15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7월 5일~ 7월 11일)

교 무 금	7,124,000원
주일헌금	4,823,000원
감사헌금	김○○10만원 이상중10만원 김라미 5만원
	김유미 5만원 이○○ 5만원 지현주 5만원
	김시아 5만원
	레지오 국수잔치 나눔 257,000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7/16	이인옥	심재순	도현만	김진수	유숙중	안상록 정재경
7/23	권태희	오성환	조홍환	신종구	장희석	장익근 구민서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7/16	박용환	김인기	손상민	박형순 오광운
7/23	박형순	박용환	이계명	오광운 이운영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잔미 받으소서” -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6. 저의 전임자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도 “세계 경제의 역기능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고, 환경 존중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성장 모델의 수정”을 제안하셨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세상을 그 일부 요소들만 따로 떼어 분석할 수 없다고 보셨습니다. “자연이라는 책은 하나이고 나눌 수 없는 것으로” 환경, 생명, 성, 가정, 사회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훼손은 실제로 인간 공존을 실현하는 문화와 긴밀히 관련”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우리가 무책임한 행동으로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사회 환경도 해를 입었습니다. 자연환경과 사회 환경의 훼손은 모두 궁극적으로 동일한 악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이 악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올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기에 인간의 자유는 무한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정신과 의지뿐 아니라 본성도 있습니다.” 아버지다운 마음으로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피조물이 손상을 입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셨습니다. 곧 “우리 자신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모든 것을 그저 우리의 소유물로 여겨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피조물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높은 법정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 이외에 아무 것도 보지 못한다면 피조물의 착취가 시작됩니다.”

동일한 관심을 통한 일치

7. 교황들의 이러한 말씀들은 많은 과학자들, 철학자들, 신학자들과 시민 단체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의 사유를 풍요하게 해 준 모든 이의 성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밖의 다른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다른 종교들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우리 모두를 어지럽히는 문제들에 관한 소중한 성찰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좋은 예로, 제가 온전한 교회 친교의 희망을 나누고 있는 존경하는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의 말씀을 간단히 인용하고 싶습니다.